

#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改善方向

李 亨 行  
(延世大 教育學科 教授)

現代社會는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機相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大學은 국가 사회발전의 礎단에 서서 미래를 豫示하고 현실을 照明해 주며 사회발전에 寄與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役割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大學教育이 당면하고 있는 課題와 그 改善方案은.

## I. 머리말

現代社會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고도 경제성장, 사회변동의 중요한 측면인 인구의 증가와 도시 집중화, 사회의 조직화·대중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천, 국제적인 경쟁과 협력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옛날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수많은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 속에 존재하는 大學도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여 사회발전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그 추진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責務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韓國의 大學은 국가안보의 증진, 고도의 경제성장, 민족문화의 창달, 국제협력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국가의 역할증대, 대학교육의 대중화·보편화, 대학 자체의 대규모화, 學問의 專門化와 細分化 및 그에 따르는 교육내용의 統合

性 維持의 필요성, 학문의 광역성·국제성 등에서 야기될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의 大學도 知的 卓越性의 追求라는 전통적 대학이념과 더불어 고도의 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機能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변동의 흐름이 반드시 大學의 意志에 따라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은 그 자체의 주체적인 발전의 목표를 위하여 국가·사회발전의 礎단에 서서 역사의 지평선을 넓혀 주고, 미래를 豫示하며 거기서 현실을 조명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韓國의 大學이 당면한 課題와 그 改善方案을 제시해 보겠다.

## II. 改善方案

### 1. 敎養教育의 強化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증대, 대학교육의 대중화·보편화, 학문의 전문화·세분화, 대학의 대규모화는

학생들의 非人間化 현상을 더욱 加速化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敎養敎育은 넓은 시야에서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키워 주는 면에서 人間中心敎育의 中核의 過程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고등교육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고도화된 전문교육의 기초로서 학문 상호간의 관련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연구방법을 다양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 현행 1년 혹은 2년간의 일률적이고 집중적인 敎養敎育 修學年限을 전 재학기간으로 연장하여 분산 실시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 각 전공영역에 따라 교양과목 이수기한을 융통성 있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2)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도구교과로서 語學敎育의 강조가 절실하다. 自國語의 자유롭고 풍부한 活用能力은 물론, 제 1 외국어인 영어에 의한 意思疏通能力도 배양해야 한다. 또 전공분야에 따른 特殊性을 고려하여 제 2 외국어도 교육해야 한다.

(3)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철학과 수학, 그리고 여러 연구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계학 및 컴퓨터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 2. 敎育方法의 改善

이제까지 대학에서의 敎育方法은 철저히 만큼 敎授中心, 敎授爲主의 교수방법으로 백묵, 흑판 강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집약적 敎育 方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敎育技術과 자본이 투입된 敎育매체의 활용, 이론과 경험에 바탕을 둔 교수능력이 복합된 기술·자본집약적 方法으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敎育方法의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敎育方法의 인간화, 개별화, 다양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敎育方法의 인간화를 위해서는 교수 일방의 知識傳達方法에서 탈피하여 학생 각자가 자율적으로 知識을 探究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에 따라 自己實現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指向되어야 한다.

(2) 敎育方法의 개별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능

력, 적성, 흥미에 맞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기존의 도서와 실험시설을 확충하여 개별적, 협동적, 자율적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敎育方法의 새싹 種 하나에는 각종 敎育매체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기존의 敎育공학적 여러 시설, 敎育기재, 자율적 학습기기 등 敎育보조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4) 현대 학문이 갖는 학문간의 상호 관련성, 광역성, 세계성을 고려하여 주제(theme) 중심의 學問間 協同的(interdisciplinary)이고 多學問的인 接近方法(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강조되어야 한다.

## 3. 敎育評價의 改善

현재까지의 교수·학습결과에의 평가는 敎育目標의 成就與否와는 관계 없이 학생의 성적을 점수화하고 그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相對比較評價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수·학습결과에의 평가는, 종래의 상대비교평가로부터 설정된 敎育目標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평가하는 目標指向評價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학생 개개인이 敎育과정 속에 명시된 敎育目標을 성취할 수 준과 질을 판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결과에의 평가는 다른 학생과의 경쟁이 아닌 敎育目標에의 도전이며,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自己 自身의 目標達成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人間理解의 手段, 自己實現의 手段이 된다. 이러한 敎育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 객관적 측정방법의 활용

(2) 미완성 학점제도(incomplete system)의 채용

(3) Pass-Fail System의 도입.

(4) 수강취소제도의 광범위한 활용

(5) 교과목별 낙제제도의 철저한 이행

## 4. 學生指導와 福祉의 向上

졸업정원제의 실시에 따라 해마다 급증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문지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의 대규모화에 따라 소외되거나

비인간화되어 가기 쉬운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宿宿舍制度를 대폭 확장하여 기숙사별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므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叢叢의 身上中心 指導體制를 學問中心 指導體制로 전환하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다.

현행 獎學制度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獎學專擔機構를 설치하여 현재 각 대학의 學生處에서 담당하는 장학관계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학내의 물론 학외의 각종 장학금 유치작전을 전략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 우수하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체기금으로 장단기간의 대여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5. 教授 誘引體制의 強化

졸업정원제에 따른 학생수의 급증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에 대처하여, 필요한 教授를 전문분야별로 확보하는 政策을 최우선 順位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낮추는 일은 재정실현 가능성과 자질이 우수한 교수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학부에서는 평균 1:14, 대학원에서는 평균 1:7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教授의 新規採用은 현행제도와 병행하여 학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公募採用制度를 쓰는 것이 좋다. 현 제도는 학벌중심, 연고관계 등의 폐쇄성이 작용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에 경제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同種繁殖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공모채용을 위해서는 교수, 행정 책임자, 이사, 學外의 전공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合議制 採用審議機構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임강사와 조교수는 기한부 전임교수로 任用하고, 부교수와 교수는 정년까지 전임교수로 任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교수, 교수급에 있어서도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기한부로 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교수의 승진은 현재와 같이 一定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年功序列制度和 병행하여, 교육과 연구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는 實績制度를 쓰는 것이 좋다.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教授研究實績 審査委員會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학원중심 대학이 되고, 학부 졸업학점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수의 주당교수 시간수를 현 9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정기간 동안 강의와 기타 업무에서 떠나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교수제도와 7년간 근속한 교수에게는 1년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安息年(sabbatical year) 制度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안식년을 맞는 교수에게는 학내의 모든 임무를 면제하고, 해외과제연구를 희망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경비는 본인과 학교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특히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학문의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대학의 국내 및 국제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내의 유능하고 저명한 교수를 초빙 또는 상호 교환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客員教授制度和 交換教授制度를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6. 大學院 教育의 強化

大學院은 심오한 학술의 연구를 통하여 인류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이 大學院中心 大學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원은 학술의 진흥을 담당할 中核體로서, 또 학술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센터로서, 그리고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창조적 觸媒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우기 80년대의 사회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할 고급 전문인력의 공급은 물론 고등교육의 확충에 따른 大學의 教授 및 고급 研究要員의 양성